

# 정부지원 제외 전남도민에 116억 긴급지원

### 전남도·교육청, 2차 민생지원 대책 마련...임신부·신혼부부도 집합금지시설에 100만원씩...고교생·학교밖청소년에 15만원

전남도가 정부의 긴급 민생지원대책에서 누락된 집합금지시설과 피해가 큰 도민들을 위해 116억원 규모의 2차 긴급 민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특별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자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비대면 수업으로 우려되는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전남도교육청과 함께 고교생, 학교밖 청소년에게 15만원씩 지원금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 19 2차 긴급민생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정부 특별지원에서 제외된 4개 업종 1516개소에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으로 100만원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실내체육시설, 목욕탕·사우나, 게임장·오락실 등 4개 업종으로 15억1600만원이 소요된다.

김 지사는 이어 "시외버스 갑종 운행과 급여 삭감, 휴직 권장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은 시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도 각각 4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761명의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며 소요 예산은 3억4000만원이다.

김 지사는 이어 "시외버스 갑종 운행과 급여 삭감, 휴직 권장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은 시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도 각각 4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761명의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며 소요 예산은 3억4000만원이다.

김 지사와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도내 고교생과 만 16세에서 18세 학교밖 청소년 5만2800명에게 도와 도교육청, 사·군이 부담해 비대면 학습지원금으로 15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교생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데 따른 조치다. 전남도와 각 시군, 전남교육청이 함께 부담하며 소요 예산은 79억1900만원이다.

김 지사는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부 건강관리비를 20만원씩 지원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정상적으로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신혼부부에게도 결혼 축하금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임신부 건강관리비는 1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8500명에게 지급하며, 신혼부부 결혼 축하금의 경우 1억9000만원을 들여 도내 380쌍의 신혼부부에게 지급한다.

이 같은 내용의 전남도의 제2차 긴급 민생지원 대책으로 도민 6만2433명과 1516개 시설은 1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의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도민들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 전남도교육청과 22개 시·군 협조 속에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며 "지원금이 추석 전후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24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 北 접촉 → 사살 5시간 '무대응' 軍 "만행 저지를 줄 몰랐다"

### 22일 실종공무원 총격·시신 확인 23일 외교안보수장 청와대 소집 언론엔 "생사 단정할 수 없다"

군 당국이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 A씨가 북측으로 넘어가 북측 인원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돼 당시 조처가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소연평도에서 어업지도선 중 사라진 공무원 A(47)씨가 북측 등산객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의해 최초 발견된 시점은 22일 오후 3시 30분께다. 전날 A씨가 어업지도선 중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지 약 28시간 만이다.

군 당국은 북측이 구명조끼를 입고 '소형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상태의 A씨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군 당국은 당시엔 그를 실종자로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이 오후 4시 40분께 북측이 A씨에게 표류 경위를 확인하고 '월북 진술'을 들은 정황을 입수한 뒤부터는 상황이 다르다. 이때를 계기로 실종 당사자임을 특정할 수 있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A씨가 총살된 건 '월북 진술'이 이뤄진 지 약 5시간 만인 오후 9시 40분께로 파악됐다. 상부의 지시를 기다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상부의 지시를 받아 고속정에 탄 북한군이 A씨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30분쯤 뒤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북측 인원이 해상에서 시신을 가림을 부여 불태웠다.

군의 설명을 종합하면 A씨가 북측에 최초 발견된 이후 총살되기까지 5~6시간가량 생존해 있었다는 의미로, 군이 국제상선통신망 등을 이용해 북측에 즉각적인

연락을 취했다면 적어도 '참편'만은 막을 수 있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건이) 북한 측 해역에서 발생했고, 처음에 위치를 몰랐다"면서 "북한이 얼마 그런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다"고 말했다.

또 "우리측 첩보 자산이 드러날까 봐 염려된 측면도 있었다"며 "우리가 바로 (첩보 내용을) 활용하면 앞으로 첩보를 얻지 못한다. 과거 전사를 보면 피해를 감수하고도 첩보 자산을 보호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실종자라고) 특정할 수 있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인도주의적 조치가 이뤄질지 등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렇게까지 나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남측 민간인을 총살한 것도 모자라 시신까지 불에 태운 북한의 잔인한 행위를 군이 사실상 지켜보기만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A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만 하루가 지났고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벌어진 '특이 동향'에 대해 마냥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논란이다. 22일 밤 A씨의 피격 및 시신을 불에 태운 정황이 확인된 직후인 23일 오전 1시께 서육 국방장관과 박지연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 수장들이 청와대로 소집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3일 오후에 군이 발표한 내용은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생사는 단정할 수 없다'는 '반쪽' 사실이었다.

당국이 북한에 '실종 사실 통보와 관련 답변'을 처음으로 공식 요구한 것도 23일 오후 4시 45분이어서 능동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북측이 실종자를 이미 잔인하게 총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운 다음 날이었다. /연합뉴스

## "추석 전 지급받으려면 25일까지 신청하세요"

### 광주시, 지원금 신청 당부

광주시가 집합 금지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을 위해 25일까지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올해 8월 27일부터 영업하지 못한 게임장·오락실 등 6개 업종에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로 서류를 확인 후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정부에서 지정한 집합금지 시설 중 지원에서 제외된 유흥주점, 콜라텍 70여 곳에도 지급하려 했으나, 정부 4차 추경에서 이들 시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복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고등학교·학교밖청소년(16~24세)·대학생에게는 교육 재난지원금 10만원씩 지급한다. 고등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교육청에서 명단을 받아 본인 또는 부모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5개 구에 있는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방문·팩스로 신청을 받는다.

광주 소재 대학 재학생은 22일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거쳐 적격자 확인 후 추석 전까지 본인 또는 부모 계좌로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찾아 시민 안전을 지키면서도 고통을 덜어내도록 노력하겠다"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민생 현장을 긴밀히 살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명절 대비 일제 방역' 24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동 일대에서 '추석명절 대비 일제 방역의 날'을 맞아 김삼오 광산구청장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삶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 함께 살아내자"

### BTS, 유엔서 희망메시지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유엔 특별 연사로 나서 전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BTS의 유엔 연설은 2018년 9월 유엔총회 당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니세프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출범 총회 이후 2년 만이다.

방탄소년단은 23일(현지시간) 제75차 유엔총회 부대행사로 열린 유엔 보건의료 우호국 그룹 고위급 회의 도중 특별 연설을 통해 "삶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 함께 살아내자"고 목소리를 냈다.

제75차 유엔 총회 부대 행사로 마련된 이번 회의는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위기의 충격을 완화하고 미래 세대를

보호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6분여의 영상 메시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도 함께 음악을 만들며 다시 일어난 자신들의 경험담을 진솔하게 들려주며 "다시 꿈을 꾸자"고 청했다. RM은 2년 전 유엔총회 연설을 회상하며 "우리 모두의 앞에 놓인 무한한 가능성을 상상하며 가슴이 뛰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제이홉은 "많은 감정을 끌어안고 우리 일곱 멤버들은 함께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음악이기에 모든 것에 솔직할 수 있었다"며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정해진 답도 없다"고 불확실한 삶을 통과하는 청년들을 위로했다.

RM은 마지막으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의 얼굴을 잊지 않고, 마주해야 하는 때"라며 "우리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고 미래를 상상하려고 노력했으면 한다. 방탄소년단이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의 화상연설에서 "전세계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에겐 영감을 불어넣는 BTS의 힘은 정말로 놀랍다"며 "BTS가 청년 세대에겐 불려오키는 희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은재 기자 ej621@kwangju.co.kr

## 선량한 농민을 투사로 만들지 마라!

(주)동북에너지는 지난 2018년부터 화순군 동북면 가수리·유천리·신울리 일원에 '화순 발전산 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음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고, 화순군의회는 지난해 풍력발전 이격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주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은 주민 피해를 무시하고 이격 거리를 크게 완화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들은 이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1. 2018년 1월부터 11월 사이 피해 지역 주민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동북에너지는 두 차례 신청 끝에 전기 사업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다수 주민들이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서명하지도 않았는데 동의한 것처럼 처리했습니다.

2. 이에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화순군의회는 2019년 8월 조례를 개정하여 풍력발전 이격 거리를 10호 미만 1.5km, 10호 이상 2.0km로 확보해 주어 풍력발전 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3. 하지만 올 들어 지난 6월 5일 화순군의회 일부 의원이 풍력발전 조례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10호 미만 500m, 10호 이상 700m로 이격 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상 14일간인 주민 의견 제출 기한을 5일로 단축하여 6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토요일을 포함하면 불과 사흘을 준 셈입니다.

더욱이 조례 개정 심의를 위한 화순군의회 의원 토의 때 이격 거리 완화 근거가 무엇이나는 다른 의원의 질문에 발의한 의원은 "현재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다. 다음 회기 때 논의한다면 찾아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합니다. 이게 주민의 대의자가 할 말입니까?

그레도 다행히 양심적인 군의원분들 덕분에 조례 개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4. 그런데 3개월 만인 지난 9월 17일 화순군의회 의원이 다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격 거리를 10호 미만 500m, 10호 이상 800m로 완화하고 단독 가구는 제외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민을 대표하며 군민과 함께한다는 군의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피해 방지에 앞장서야 할 군의회가 사업자의 입맛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민주 시민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결사의 각오로 풍력발전 이격 거리 조례를 지켜내고자 합니다.

화순군 동북면 풍력발전반대위원회 대표 김길열

풍력발전 위협 사실 제보(김길열 010-9433-7772, 임종표 010-5609-9717)

## 땅 매매

화순 도곡 신덕리 계획관리지역 임야 20530㎡  
야산·축사허가 및 지붕 위 태양광 설치 가능  
선로확보가 14억원(조정가)

남구 대촌 지석동 자연녹지 답1003.5㎡

(대촌산업단지4차선 도로점, 아파트 2천세대 예정) 29억원

남구 대촌 양과동 답1857㎡ 2억8천5백만원

남구 대촌 양촌동 답3875㎡ 3억5천5백만원

광산 수완동 상업용 4층 건물 대지 480㎡, 연 998㎡, 엘리베이터

아파트 밀집지역 보 2억9천만원, 월 1640만원, 용 12억원 매 42억원

나주 남평 교촌리 생산녹지2585㎡ 3억5천5백만원

대한공인중개사무소(전제) 010-6683-3274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 포충로 606-2

### 산행안내

9월25일(금)

▲광주호산회 9월25일(금) 무

박2일 설악산 대청봉 전봉돌

계곡 B코스 울산바위 권금

성케이블카, 풍암동 롯데마

트 7주차장 출발 22:00, 롯데

백화점 22:30, 예술회관 후문

22:45 \* 다음카페 광주호산

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 특별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망 배강현(530425-XXXXXX)

•최후주조: 광주 동구 계림동 271-25

피상속인 망 배강현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

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

법원 2020년1148호로 신청하여 2020년 9

월 1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

한 일말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

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

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9월 25일

•상속인: 배나윤(820702-XXXXXX)

부산 부산진구 백양로 10

311동 1312호(당감동, 주공아파트)

•신고기간: 2020. 9. 25. ~ 2020. 12. 4.

•채권신고처: 상속인 배나윤의 주소

### 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망 이형수(621018-XXXXXX)

•최후주조: 전남 화순군 백야면 백야로 2082

피상속인 망 이형수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

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

법원 2020년3439호로 신청하여 2020년 9

월 17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

한 일말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9월 25일

•상속인: 이은주(600815-XXXXXX)

광주 남구 봉선로 87, 106동 801호

(밤림동, 모아아파트)

•신고기간: 2020. 9. 25. ~ 2020. 12. 4.

•채권신고처: 상속인 이은주의 주소

### 정정공고

본지 2020년 9월 23일자 게재된 광

주민속의거래협동조합 해산및재권신

고공고중 사업장명 광주민속의거래협

동조합을 광주민속의거래협동조합으

로 정정 공고함.

### 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망 함철(701010-XXXXXX)

•최후주조: 여수시 돌산읍 방죽로길 77

•등록기준지: 전남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264번지의 1

피상속인 망 함철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0년 단

414호로 신청하여 2020년 9월 21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말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

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9월 25일

•상속인: 1. 박미현(740415-XXXXXX)  
여수시 여서2로 39, 111동 504호  
(여서동, 주공아파트)  
2. 한유미(950204-XXXXXX)  
전남 여수시 문수북길-19(문수동)  
3. 한유미(970818-XXXXXX)  
여수시 여서2로 39, 111동 504호  
(여서동, 주공아파트)  
4. 한유미(00203-XXXXXX)  
여수시 여서2로 39, 111동 504호  
(여서동, 주공아파트)  
•신고기간: 2020. 9. 25. ~ 2020. 12. 4.  
•채권신고소: 상속인 2. 한유미의 주소

光州日報

광고문의

062-227-6900